

# 社說

## 미해결 현안문제 자주적으로 임해야

### —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을 마치며

제8차 남북 고위급회담이 지난 17일에 열려, 회담 참가국 교섭단체 중 3부분에 관한 부속합의서가 각각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

이제까지 남북 북의 만남이 상호체제의 불신과 거부와 오히려 상호의 유익과 정치리점, 이번 고위급회담이 성과로 인해 남북한 관계가 대외의 마당에서 실정의 장으로 바뀔 것으로 우리는 기대한다. 그렇지만, 부속합의서 내용을 남북이 상호 토의하는데 있어 미결의 안건으로 남는 것들이 지금에 남북관계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핵심 문제와 이산가족 고향방문 실현 문제인데, 이 미결안건을 앞으로 있을 공동위원회에 넘긴다는 점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부속합의서의 내용이 바로 현실적인 점에서 소극적이라는 점이다.

이번 미결안건이 선결되지 못한 채 부속합의서가 채택된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부속합의서가 조급하게 합의 되었다는데 있다. 그 이유는, 지난 5월 7차 고위급회담에서 이번 회담에 좋은 성과를 얻어야 한다는 남북 양측의 간박한 열의가 고조되어 보아 확인되었다. 남한에서는, 노동통행이 강조된 북의외교를 더욱 가시적 성과로 보여주는 것이고, 민자당이 대선을 겨냥한 선봉로 민중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남한의 경제 발전과 통일전선사업의 신장책에서 긴급 위급감을 극복하려는 것과, 박정희의 대외교관계의 돌파구를 열자는 것이다.

남북간 정치적 이해와 이러한 이유로 해서, 부속합의서의 내용을 실천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회담부속합의서 제3장 제3조 중

“남북의 권한과 관능을 인정”하며 제10장 중 “민족구성원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 할 때에 이산가족 고향방문이 실현하는 것은 남북 양측 모두 변명의 여지가 없다. 또한 회담부속합의서 제2장인 “내부문제 불간섭”이 합의된 때에 자 제6항 제2조 중 “국제부대에서 상호 비방 중상을 금지 아니 할 때에 북한 핵시설이 도대체 어떤 의도인가,

남북 상호간의 현안문제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교환하지 못하기에, 현실상이나 이산가족의 문제가 공동위원회 활동으로 넘겨지고 치우기 힘든 입장에서 불행한 일이다. 회상소사실하자, 그럼 국가보안법할수해라, 그렇다면 이산가족고향방문도 다시 고려하자만 식의 꼬리를 푸는 음수로는 미결문제를 해결해야 할 임무를 지닌 공동위원회 활동의 결과가 볼 뜻이 아니다. 이런 우려를 갖고 우리는 몇가지를 당부코자 한다.

먼저 우리는 이산가족 고향방문 등의 미해결 현안문제를 자주적이고 민주적이며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편에서야 한다. 불신과 브러의 문제로 넘겨서는 절대 안된다. 둘째, 초강대국인 미국 의 외교 영향권이나 구시대 유물인 냉전시대를 무너진 기류에 대립과 대립이 벗어나야 한다. 민족내부 모순인 분단과 민족내부 분열이 해소될 때까지는 미결안건이 합의가 어렵다는 인식이, 남북 양측은 1대1로 만나야 한다. 세째로 노동통행과 통일, 도시빈민 등 공동문제에 합의가 위한 민중의 가난하고 진실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통일 의 실현된 주체가 말하는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

## 언론은 공기로써 정도를 지켜라

### — 최근 신문·방송의 보도태도에 관해

우리의 공기(公氣)가 권력에게 변질되어 가고 있다. 우리가 언론을 두고 흔히 이야기 할 것을 제2의 시범부대, 혹은 ‘사회의 공기’라 하고 이야기 한다.

그러나 우리시대 언론은 이미 제2의 시범부대가 되어버린 날카로운 비판도, 사회의 공기가 지나 이할 형평성도 잃어버린 채로 있다.

이것이 우리시대 언론의 본질적인 약점이다. 우리의 언론은 대선이라는 ‘총합’을 맞이하여 그 진가를 유감없이 발휘하는 ‘정권의 통치술’에 맞춰서만 힘을 지니려는 독자방송·신문과 부합하게 만들고 있다.

가장 최근의 실험으로 알려진 김형욱의 구속된 김나중씨 사건과 이석도 의문사 싸움을 벌이고 있는 MBC노조총조의 파업에 대한 보도만 보더라도, ‘재야운동가’와 고정간첩사이를 넘나든 김나중씨는 과연 어떤 사람인지 ○○○자가 보도합니다” “재야운동가’와 고정간첩사이를 넘나든 김씨의 혐의는 과연 어떤 것인지 보도합니다. 실로 40여년 만에 있습니다. KBS뉴스 ○○○가 보도합니다”라는 정권 대변자의 보도만을 시청자들에게 제공한 TV뉴스나, 공정보도를 위해 파업까지도 불사한 MBC노조의 이기기를 찾아볼 수 없는 신문지면에서, 독자들은 과연 무엇을 느끼겠는가.

진정 언론이 제2의 시범부대이며, 사회의 공기라면 독자 또는 시청자들에게 단순한 정부의 논리를 홍보하는 언론이 아니라 사회의 현실을 치우침과 왜곡없이 국민들에게 알려내야 한다.

이들 기만으로 사회의 올바른 여론을 이끌어 내야하는 중책을 맡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황도 없이 10여일간을 장기간 가 폭력의 인권유린 사실도, 증거를 수집과정에서의 공정성 여부의 문제도 없이 단숨에 정부의 발표 사실만이 진리인 양 정부의 논리에 충실한 행위체가 되어버린 언론도, 공정방송 활동을 위해 단재교섭을 벌이다 끝내 파업에까지 이르러 된 동료들의 이야기가 방언이 되어버린 언론도, 진정 그 언론의 주인인 독자가 원하는 언론이 실은 아니다.

우리에겐 우리의 언론은 대야산 주와 곡을 구 분하지 못하고 자신의 임무를 망각한 채 정부의 논리만을 대변하는 영무세도, 방언이 되고 있는 일일 것이다.

한편 이를 바라보는 독자와 시청자 역시, 우리 자신과 우리 언론의 주인은 바로 다름 아닌 국민 자신임을 자각하고 언론에 대한 철저한 시각감시, 항의전화, 시청률 거부 등 보다 적극적인 공정방송 실현을 촉구 해야 할 것이다.

시청자·독자들과 언론감시활동이야말로 잘못된 언론의 보도기능을 견제하는 제1의 해결책이 된다.

한편 언론이 봉사하는 언론인 역시 핵심간부들의 기득권 보호보다는 보다 올바른 방송으로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 나가는 것이 자기자신이 용 담고 있는 언론과 더불어 사회 전반의 정화기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대야산 국민은 영무세도, 방언이 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을 언론은 명심해야 한다.

## 대 학 주 보

“문화방송은 권력과 정경진의 것이 아니다.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자”

현재 파업이 계속되고 있는 MBC노조 임원의 한쪽 소견이다.

지난 2일, 공정방송제도와 학교자율권, 임금인상안 등을 놓고 MBC경영진과 마찰을 빚어오던 MBC노조는 지난 8일 이 미 협상을 통해 결정된 공정방송활동을 금지한다는 단서협약안 체결 강요, 앞날에 이 임금인상 특별안행 등의 경영진의 횡포에 맞선 공정방송정화를 위한 실력행사에 나선 것이다.

작년 10월 동아일보 편집국장인 김준배씨가 권력과의 싸움에 앞서 ‘언론자본과 투쟁’을 선언하고 불러난 지 1년이 되어간다. 그동안 언론인들이 자본과의 싸움을 해 온 성과는 뚜렷이 나타나지 않았다.

언론이 진실보도를 이룩하는 것은 이념의 민주화를 위한 필요조건인 동시에 언론의 이러한 미명(美名) 해이한 신상(新相)이다. 이러한 점에서 지금 MBC노조가 거둔 첫 ‘투쟁’에서의 승리가 가져다 줄



## MBC파업 외면하는 언론의 무관심

실은 후 계속 속보를 보도한 반면, 권력과 대자본의 손과 발이 되어버린 제2언론들은 MBC의 방송이 방언으로 치닫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 방언이던 말 바라는 고된 여정이 끝난 TV방송이 날로 조

관망하는 것을 본 시청자들의 불만이 불어날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저급의 상황과 함께 시정(時情)과 국민(國民)의 공평(公平)을 들어 줄 만한 기사는 보도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일간지는 오히려 방송 노조파업을 갖기보다 더 많은 보도를 할 때면 지면이 개채되는 TV프로그램 정보만큼의 기사도 실지 않고 있는 실이다.

또한 MBC의 해도는 어떠한가, 9시 뉴스시간에 ‘사고 형식’을 빌어 파업이 일어난 배경을 회색화시키고 노조를 비방하는 취향(趣向)을 보이고 있다. 그들은 거짓과 표면상의 상황만을 다룰 뿐 다른 어떤 것에 관해 서로 언급하지 않는다.

## 역사의 심판 받을 '선거부정'

### — 현대사와 더불어 본 韓 군수의 양심선언



라는 시비를 남기지 않은 적이 있었나?

선거부정은 끊임없는 정권의 정통성 시비를 불러 일으켜 왔고, 이는 한국 현대 정치사에 있어 치욕적인 오점(汚點)이 있는 것이었다. 부지불식한 공권력을 가장 전방각각 사용하여 선거부정을

## 언론플레이 통해 민주화 환상 심기 노력해

### 정권의 관권·금권선거 역사가 패배 입증



‘세종 — 선거철?’

4공화국의 박정희 군부 독재 정권은, 야당과 재야학생세력에게 한 걸음없는 거센 시비 속에서 치루어진 1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 대중으로부터 실망반응을 일으켜 패배한 역사가 있었다. 결국 10·26의 총선으로 마땅 전락하게 사용되어 선거부정을

이것이 우리의 뇌리 속에 그 지쳐를 남기고 있는 국악한 전두환 군부 독재 정권 또한 최근 내 선거부정에 대한 끊임없는 시비를 일으켰다. 왜곡된 언론, 정경계급으로 정치인들과의 괴간권을 제한한 가운데 치루어진 국회의원 선거가 권력자에게만 유리한 국면이 되었다. 법률 외적인 위장적인 선거부정과 관권·금권선거에도 불구하고 5공화국의 전두환 정권은 학생과 재야, 그리고 야당의 끊임없는 저항에 부딪힌 민심으로부터 떨어져 갔으며, 12차 총선거에서의 실직적 패배로 인해 위장적인 권력의 길은 막히게 되었다.

과연 6공화국은 어떠한가? 6공정부의 고도의 세련된 정책이 있었으며, 각종 언론 매체들이 국민 대중에게 민주화 환상을 유포해 왔고, 또한 그러한 공세가 어느 정도 국민대중에게 먹혀 들어온 인상을 받았던 분구하고, 우리는 또 다시 관권·금권 부정부정 시비에 휩싸여 있다. 다시는 없을 수 없었던 관권·금권 부정부정 시비가 너무나도 파란만장한 자료와 더불어 우리의 눈앞에 선연히 드러

가장 저급한 형태로 나타나는 ‘권력정치’가 6공정부의 ‘민주화 환상 심기’의 극적 역전 속에서 속에서도 엄연히 자행되고 있는 사실이다. 이렇고도 6공정부의 담당자들은 텔레비전이나 각종 기자회견에서 ‘6공은 민주화를 위하여 전진하고 있다’고 아무런 양심에 거미줄도 얹지 않고 ‘사건’을 가시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언론을 조기에 수습하고 있다. 수사 당국의 발표에 의거하면, 양심선언한 한순수 前 연거군수와 14대 선거 당시 민자당 후보인 임재길씨의 ‘과실 중상’과 ‘담임되고 보지는

가장 저급한 형태로 나타나는 ‘권력정치’가 6공정부의 ‘민주화 환상 심기’의 극적 역전 속에서 속에서도 엄연히 자행되고 있는 사실이다. 이렇고도 6공정부의 담당자들은 텔레비전이나 각종 기자회견에서 ‘6공은 민주화를 위하여 전진하고 있다’고 아무런 양심에 거미줄도 얹지 않고 ‘사건’을 가시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언론을 조기에 수습하고 있다. 수사 당국의 발표에 의거하면, 양심선언한 한순수 前 연거군수와 14대 선거 당시 민자당 후보인 임재길씨의 ‘과실 중상’과 ‘담임되고 보지는

의와 내면 심리’에 의해 저질러진 일개 군 부대에만 한정된 선거부정의 ‘주모자들’은 언제 ‘망조’라는 죄목으로 불구수 제 리되거나 아무런 사법적 처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선에서의 마구 리가 된다. “이러므로 6공 정부가 주장하는 ‘민주화’는 이러한 형태로 가장 전형적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 말하자면, 이는 백일하에 드러날 부정부정 공판연회 지 않고 항상 웃으며 하며, 양심선언이라는 내외의 강등으로 어쩔 수 없이 드러난 부정부정은 책임있는 하수인 선에서의 말 처리로 끝낼려고도 열망할 수사를 했다고 자부하는 민주화이다.

그러나 우리에게서 이번 사건에서 그냥 넘겨버리지 않아야 할 점이 있다. 먼저, 환상적으로 제 가되는 통제가 없는 한, 한순수 前 연거군수가 제2차 양심선언을 통해 표현한 ‘관계기관 대회의’에서의 안기부의 개입과 활권이 그것이다.

헌 중철 (대학원 사회과 석사4기)

## 21세기 건설문화를 이끄는 휴먼크리에이션

企 業

인재발굴

인재양성

인재중용

樂

**극동건설의 세가지 기쁨, 모두가人材에 있습니다.**

기업에 필요한人材를 고르는 '人材발굴의 기쁨'  
그人材의 능력과 잠재력이 충량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활용하는 '人材중용의 기쁨'  
極東建設은 企業三樂의 참맛을 소중히 여기며  
人材개발주의로 안전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활을 보다 풍요롭고 보다 안락하게-  
極東建設은 휴먼 크리에이션을 바탕으로  
축적된 경험과 새로운 기술개발을 통하여  
보다 알차고 21세기류 향해 정진하겠습니다.

**1993년의 극동인을 찾습니다.**  
**2000년의 세계인을 찾습니다.**

21세기 극동인의 무대는 세계-  
그 주인공이 될 젊은 의욕을 찾습니다.  
지금보다는 내일의 가능성을 더 들여다보는  
미래기업 극동건설에서 귀하의 뜻을  
더 크게 펼쳐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모집부문	1. 인공, 방위, 공학, 경영, 회계, 정보, 조리학 2. 자연, 사회, 인문, 공학, 기계공학, 전자공학, 화학공학, 토목공학, 건설학
응시자격	1. 93년 1월 1일 현재 대학재학중인 고졸이상 2. 1965년 1월 1일 이후 출생 3. 해외에서 공부한 적이 없음 4. 본원 또는 본원 5. 자격 불만족소속이 없음
모집인원	약 100명
전형방법	1차: 인, 사정지 2차: 서류면담 3차: 면접
채용서류	1. 영사(영사) 및 자기소개서(부사) 1부 2. 대학재학 중인 학생(부) 3. 졸업사 1부(사) 1부 4. 자기소개서(부사) 1부(사) 1부
서류접수	1. 93년 10월 1일~9월 30일 (주말은 10시~5시) 2. 접수처: 서울중앙유학원 사법동 203호 (주말은 10시~5시) 3. 접수방법: 우편접수

\*문의처: 서울 중구 동대문로3가 60-1(극동빌딩)  
극동건설(주)인사부  
TEL: 273-1141, FAX: 273-4719

**極東建設株式會社**

본 사: 서울특별시 중구 동대문로3가 60-1(극동빌딩)  
대표전화: 273-1141, FAX: 273-4719